

農村에서의 조산아 간호

경기도 고양군 보건소 보건간호원

윤 득 순

농촌 보건소에서 경험입니다. 경험도 적은 보건 간호원으로서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 산간 벽지에서 조산아를 분만 하였을 때의 간호원의 입장은 어처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간호를 하면서 가슴 쓰일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무지와 가난 바쁜 농사일 등의 환경은 이 태어난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보건 간호원의 힘과 계몽 없이는 귀여운 생명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골의 환경은 임신을 하여 배가 불러도 생계를 위해서는 뜨거운 햇볕에 쪼그리고 몇시간 때로는 하루 온종일 김을 매야하고 몇리나 되는 일터에 하루 몇 차례의 밥을 이어 날아야만하고 무거운 들동이를 이어야 하는 생활 조건을 또한 가족계획을 알지못해 임신을 하려는 산나무 뿌리 열매등 독한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다가 조산을 하게되는 조건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달이 다차서 낳은 애기도 굶하게 대개는 일하다 들어가 혼자서도 낳고 아버지가 받을때도 있고 이웃에서 받을때도 있으니 준비도 없이 녹이슨 가위들 그냥쓰고 장에서 사다는 실을 그냥쓰게 되고

배꼽을 길게 잘라 놓으니 Tetanus 로 죽는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계몽을 위해서는 병원시설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수준이 좋은 도시 보다는 농촌에서 부터 보건 사업을 하여야 우리나라의 보건사업의 향상과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켜 복지사회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이런 농촌에서의 조산아를 받았을때의 저의 경험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 임부는 보건소에서 20리나 떨어진 곳에 사는 26세의 임부로 2회제의 분만을 하였읍니다. 첫애기는 정상 분만을 하였는데 할물 유두로 젖을 먹이지 못해 무척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둘째 애기는 임신 2개월 부터 이웃에 있는 사람의 소개로 보건소에 다니며 열심히 보건 간호원의 산전 지도를 받던중 6개월이 되면서부터 자궁저가 아래로 처져서 일할 때 걸을때 불편을 느꼈다고 호소하므로 복대를 하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먼거리를 걷는다면지 과로를 하는일은 조산의 우려가 있으니 피하도록 일터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개월 3일째 되던날 아침에 발에나카 배추를 뽑아 이고 들어와 한참 있으니 배가 아프면서 불그스런한 질배출이 있

어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물어본즉 전날 하루종일 집을 배었다고하여 진찰을 해본즉 아두가 고정이 되었으나 배는 심하게 아프지 않다고 하여 분담 준비를 하여 가지고 가차 집오브가 한참만에 분만을 하였습니다. 정상 분담은 하였으나 애기가 2,1 kg 였습니다.

산후 처치를 하고 애기의 기관지를 깨끗이 빨아낸후 참기름으로 태지를 닦는 정도의 목욕을 하여 하체를 약간 높여서 불을켜서 방을 덥게하고 수건을 몇개 적셔다가 방에 걸어 습도 조절을 하여주고 애기의 상태란 자주 살피면서 방에는 아무도 못들어오게 하여 감염을 방지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NPO 시키고 30분마다 자세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후 하루만에 Gavage tube 와 주사기 설탕가루 보리볶은 것을 가지고 가서 5% glucosc 로 만들어 20 cc 를 먹였더니 어머니는 tube 를 목에 넣는것을 보고는 애기를 죽이논들 알고 처음 볼트 울고 있기에 한참 이해를 시켜 험즈를 얻었으나 애기 할머니 되시는분이 이 간호원이 애기를 죽이려 한다고 나가라고하는 등의 난처한 일을 겨우 진정시키고 이렇게 안하라는 이 애기 생명이 위독하다는 등의 설명을 해드리고 애기를 마음놓고 내게 맡겨 달라 하였더니 겨우 이해가 간 듯 하였습니다. 5% glucose 을 계속 3 시간마다 주면서 어머니를 지도하고 실습을 시켜드렸습니다.

본자손의 보건 간호원으로 하루종일 보낼시간이 없으므로 매일 매일의 간호를 위해서는 어머니론 지도하는 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지 내 자신이 feeding 은 하여보고 시켜도 보고 소독병도 솥을 깨끗이 씻고 아무것도 못하게하고 그 솥은 소독만 하게하여놓고 tube 와 주사기를 비누로 깨끗히 닦아 끓이는법 등 어머니 자신이 할수있게 하루동안 몇번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tube 를 넣을때 기도로 넘어가나 살피기 위해서는 애기의 얼굴 색깔 애기 상태를 보아 파래지거나 구역질을 심하게 하거나 배서 다시 넣으라 하고 소독에 조심해서 먹이도록 하였으며 계속 습도조절 온도조절 감열방지등 부드럽게 다루도록, 대변 소변의 색깔 냄새등을 자세히 보도록, 하루에 한번씩 일러주고 시범하여 주었더니 어머니는 신기 하다는 듯 성의를 다하여 하고 계가 가려는 자세한 보고를하여 주었습니다. 2일째 되던날부터는 어머니 젖을 짜서 뚜껑이 잘맞는 사발에다 담고 끓는물에 넣어 증탕을 하여 20 cc 부터 시작을 하였으며 먹은후는 애기 상태와 토하는가를 자세히 살피도록 일러 주었습니다. 매일 들며 복음과 체중 어머니 보고를 듣고 4일간을 매일 하루종일 들보고는 5일째 되던날 부터는 어머니께 완전히 맡겨 드렸습니다. 나날히 울음소리가 강하고 많이 먹으려하더니 2주일 후에는 2.5 kg 가 되었고 젖을 약간씩 빨려보라 했더니 3 주일이 되면서 2.8 kg 가 되고 이제는 젖도 잘빨게 되었습니다.

한달후서부터는 보건소에 나와 영유아 등록을하여 상담토록하고 어머니는 가족계획 지도를 받도록 일러 드렸습니다.